



바라쿠다

Spicara barrauda 길이 약 50cm~2m

바라쿠다는 농어목(Order Perciformes) 꼬치고기과(Family Sphyrnidae)에 속한다. 꼬치고기과의 어류들은 대체로 몸이 길고(50cm~2m), 입이 크고 길쭉하며 아래턱 끝이 위턱보다 튀어나와 있다. 뾰족한 이빨이 있고, 등지느러미는 서로 멀리 떨어져 있으며, 꼬리지느러미는 중후반 위치에서 두 갈래로 갈라져 있다. 몸은 전체적으로 둥근 작은 비늘로 덮여 있다. 등은 황갈색, 배는 은백색이다. 꼬리지느러미를 제외한 지느러미들은 노란색을 띤다.

바라쿠다를 뜻하는 학명인 스피라에나(Sphyrna)는 망치(hammer)를 뜻하는 그리스어에서 온 것이다. 바라쿠다의 머리가 지질학자들이 사용하는 뾰족한 쇠망치와 유사하다고 해서 유래된 것이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망치 모양이 아니다. 다이버들이 수영중에 물리기도 하지만 떼지어 다니는 모습이 매우 아름답다고 한다. 제주도 남방 해역에서 대만 북부 해역에 이르는 수심 60m 이상 깊은 해역에서 주로 서식한다. ㉠

